

PC-II-12. Full-mouth disinfection 시행 후 6개월간의 임상적 효과

이신화*, 김옥수, 김영준, 정현주
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치주치료의 성공은 치태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 감소에 의존하며, 대부분의 치주 감염에 추천되는 방법은 물리적인 접근법으로 scaling과 root planing (SRP)을 들 수 있다. conventional SRP의 경우 치료되지 않은 치주낭, 혀, 점막, 편도 등 구강 내 다른 부위에서 병원성 세균이 치료된 치주낭에 쉽게 재집락화될 수 있다. 따라서 감염된 상태의 치료되지 않은 치주낭으로부터 치료된 치주낭으로의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클로르헥시딘을 병용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악에 SRP를 시행하는 full-mouth disinfection (Fdis)이 도입되었다. 본 증례에서는 만성 치주염 환자 치료 시 실제 적용하기 쉽도록 변형시킨 Fdis를 시행하여 6개월 동안의 임상적 효과를 conventional SRP와 비교하고자 하였다.

연구재료 및 방법

전남대학교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전반적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실험군에 scaling을 시행하고 1주일 후 국소마취 하에 subgingival full-mouth SRP를 시행하였다. 클로르헥시딘 용액(0.1%)으로 시술 전 mouth rinsing, 시술 동안 subgingival irrigation, 시술 직후 tongue brushing, 시술 후 2주 동안 1일 2회 mouth rinsing을 지시하였다. 치은 열구 출혈 지수, 치태 지수, 치은 퇴축, 치주낭 탐침깊이, 임상적 부착수준을 Fdis 시행 전, 시행 후 1, 3, 6 개월에 측정하여 1주일 간격으로 사분약씩 SRP를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.

연구결과

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치은열구 출혈 지수와 치태 지수는 시술 1, 3 개월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치주낭 탐침 깊이는 단근치에서 시술 1개월 후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나, 다근치에서는 유사한 감소를 보였다. 중등도의 치주낭에서는 1, 3 개월 후 대조군보다 더 많은 치주낭 깊이 감소를 보였다. 치은 퇴축은 대조군에 비해 적었지만 유사한 증가 경향을 보였다. 임상적 부착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개월 후 현저히 감소되었고, 3개월 이후에는 약간 증가하였다.

결론

만성 치주염에 변형된 full-mouth disinfection을 시행하고 6개월간의 임상적 효과를 관찰한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치은 염증 및 치태 감소, 중등도의 치주낭 및 단근치의 치주낭 깊이 감소 등에서 더 많은 임상적 개선을 치유 초기에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.